

칼빈주의 바로 알기 15

칼빈주의 구원 교리 옳은가? 성경의 구원 교리대로 믿어야 한다

딤후3:14-17

요즘 교회 내부에서 구원 교리로 인해 어려움이나 혼동을 겪는 분들이 있어 갑작스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 주의자도 아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일에 쉬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교회에 오는가, 다니는가,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는가, 특별히 아이들을 예수님 믿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가? 결혼도 가능하면 신자와 하려 하는가? 왜 바쁜데도 성경을 읽는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으려고, 죄들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으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 훨씬 더 중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올인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구원 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주셨다.

딤후3:14-17을 보자. 13절

14절: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15절: 성경기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영원에 소망을 두게 하여) 심지어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기록들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하고 있다(메시아, 율법, 모세,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롬1:16)

16절: 17절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통해 특별히 어떤 지식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다. Good News=Gospel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507쪽),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

(*)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보통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 저주받아 지옥에 갈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들은 어느 면에서 믿으려고 애써도 믿을 수 없도록 작정된 존재들이다.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 위배된다.

(*) 딤후2: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야 복음이다.

겔18:2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11

그런데 이런 교리 시스템을 만들고 추종하며 이것이 가장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존 파이퍼, 스프로울, 맥아더, 그루뎀, 켈러 등 소개하면서 늘 느끼는 문제
 나는 이분들을 다 구원받은 분들로 믿는다.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배울 것들이 많아 소개하지만 이들의 책을 읽다 보면 불쑥불쑥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섞여 나오므로
 목사로서는 혹시 성도들이 이런 데 빠질까 봐 두렵다. 또 이분들이 칼빈주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주의하라고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의 교회 분열 문제가 심해지자 결국 미국 남침례교회는 2012년 가을 호와 2013년 봄 호에서
 자기들의 신학 저널의 전체 면을 할애하여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한 진술문을
 실었습니다. (*) 1부는 85쪽이고 2부는 91쪽이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구원받는 방법 등 성경을 토대로 교리를
 설명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확실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나는 오늘 <칼빈주의 구원 교리 No! 성경의
 구원 교리대로 믿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틀릴 수 있어도 구원 교리에서 틀리면 안 된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므로
나나 어떤 목사의 설교 믿음 진술문, 모두가 검증해야 한다. 행17의 베레아 사람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과 비교하였고 맞는 것을 확인한 뒤 믿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사람의 타락과 책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방법, 성화 등 여러 요소

1. 사람의 타락과 책임

우리는 사람의 전적인 타락 부패를 믿는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부패한) 죄인이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의는 완전하게 올바른 것을
 뜻한다. 즉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로마서 3장 9-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읽자.

엡2를 보자. 타락한 사람은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엡2:1)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며(엡2:3)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다(엡2:12).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렘17:9).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 가운데 놓여 있다.

그(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자기의 죄와 불신에 대해 결코 변명할 수 없다(롬1:18-20).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고전11:7)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넬료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도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행10:1-2). 설명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은 할 수 없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심지어 그의 의 혹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사64:6).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이 처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사람은 인간이 지불하는 어떤 것이나 장치에 의해 결코 구속받을 수 없다(시
 49:7-9).

구원에 관한 한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사람에게에는 자유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 심지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도

모든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된다.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믿는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마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계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2.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선하게 뜻하신 계획에 따라 하신다((엡1:11; 시135:6; 사46:10-11; 단4:35).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뜻하신 계획에 따라 죄의 늪에 빠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딤펴전2:4-6).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요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 주권은 sovereignty이다. OED 최고의 통치 권세, 최고의 통치 위치, 누구에서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의 이해: 주권을 통제, 간섭, 단속, 감독으로 이해한다.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다(in control). 그러나 하나님은 위낙 권능이 크시므로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not controlling). 마6:1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사에 대한 모든 간섭이라면 이런 기도 불필요. 조금 있다가 설명한다.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이 심취한 스토아학파의 숙명론 근거: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의 어디로 떨어지는지, 수탉들이 싸울 때 목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책 [섭리]에 기록되어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간섭을 주권으로 착각함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의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수십만 명의 사원들이 있고 하청 업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삼성 이회장 부회장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할까? 아니다.(*).

자신이 이끌고 나갈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지만 (*)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지침에 따라 자유롭게 일한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진다.

아침 8시, 9시 출근, 오만가지 이득,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의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모든 것을 자신이 기뻐하는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고 가신다. 그러나 그 일에 사람이든 천사든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즉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까지. 무엇을 먹을지... No!

하나님과 사람이 장기를 둔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은 0%, 자유롭게 두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100% 이긴다. 그래서 마귀도 사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램해서 자기 뜻대로 되게 만든다고 가르친다.

즉 장기를 둘 때 사람은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대로 둔다. (*)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것이다. 아담의 타락, 마귀의 타락, 천국, 지옥 선택,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램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할 일을 모두 아시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모두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책임을 묻는 분이다. 누가 더 강한 존재인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 혹은 모두

프로그램 하는 분, 당연하지 않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3. 예수님과 구원과 믿음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요14:6,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다. (*)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요일2:2).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지며 이 일에 사람의 행위가 기여하는 바는 0%이다(롬11:6; 딤후1:9; 뱀전1:18-21).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100% 사람이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롬3:25, 30-31; 갈3:8, 14; 엡2:8; 3:15; 히6:12).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보여 준다(롬9:32; 갈2:16; 3:2). 구원이 행위의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의 법에 의해 이루어지면 자랑할 것이 없다.

(*) 3:23-24, 27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7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4:2-5 설명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선물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므로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선물을 주는 존재에게 돌아간다.

4.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요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찾지 못한다.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증하거나 스스로에게 빛을 주거나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즉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죄인들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끄시는가?

다음 절 6:45를 보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이끄는 것이다. 44절의 '이끌다' 앞에 '강제로'나 '저항할 수 없게'를 붙이면 안 된다. 즉 예정된 자들로 만들면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셨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12:32). 모두 구원 아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 선포자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며 죄인들이 유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쳐 주신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확증 사역에 동의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즉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이로써 사람은 구속을 받고(엡1:7) 죄들의 용서를 받으며(엡1:7) 다시 태어나고(딤후3:5)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며(엡2:1)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골1:13). 즉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

(*)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1:12-13).

이 구절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믿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 죄인은 결코 자신의 뜻에 의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오직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며 구원하신다.

5.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일5:11-13)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골1:13)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받고 있다(엡1:3-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엡2:5-7). 성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3:3).

6.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구원은 회심한 삶에 의해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요일2:4)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요10:27).

하나님의 저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엡2:10).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제하려 하심이니라(엡2:10).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구원과 성화(혹은 제자도)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징표로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인데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면 매아더 목사의 로드십(주재권) 구원이 되고 이것은 곧 행위 구원이다.

7.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또한 그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28-30).

결론

우리의 구원 안전한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분에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행16 빌립보 감옥의 간수, 30,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복과 안전 보장의 복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